

서울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

JUDGE'S EYE

2014.12.6.~12.7 양재aT센터

2014년 마지막을 장식한 빅쇼였던 2014 서울 FCI 국제 도그쇼는 명성이 자자한 해외 심사위원의 초청으로 기획 단계부터 기대가 큰 행사였고, 그 기대만큼 알차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사실 12월의 도그쇼는 심사위원 라인업에 따른 기대만큼이나 속이 짝 찬 대회였다. 사실 12월에 도그쇼를 개최한다는 것은 비록 장소가 실내라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주최 측 뿐 아니라, 출진자들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야 하고, 참가 업체 입장에서도 겨울에 행사 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큰 무대에서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주었다. 그럼 이제 심사위원이 이야기한 이번 도그쇼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와 냉정한 시선을 함께 따라가보자.

<'14.12.7. 'AKU 챔피언십 도그쇼' 레귤러 클래스 수상사진>





에드 비빈(Mr. Edd Bivin)

“심사위원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다.”

미국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심사위원 중 한명인 에드비빈 심사위원은 현재 AKC 심사위원 중 가장 명망있는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일 것이다.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긴 했지만 지난 방문이 스페셜티쇼 심사를 위한 것이었기에 전 건종 도그쇼 그것도 빅쇼를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거의 모든 주가 심사일정으로 꽉 차 있는 그의 너무 바쁜 일정 탓에 최소 2년 전에는 초청장을 보내야만 한다.

링 안에서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압도하지만, 링 밖에서는 이보다 더 친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멋진 신사였다. 그가 보여준 심사의 기준과 판단은 분명했으며 결정을 할 때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심사위원의 교본과도 같았던 그는 심사위원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틀 간의 심사로 피곤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도그쇼에 대한 감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틀 간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쇼 운영은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작과 끝 시간도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장소도 아주 훌륭했고, 링 사이즈도 적당해서 좋았습니다. 개가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와 출구도 편리하게 설계되었고, 링 안이 아주 깨끗하였습니다.

심사하신 견종 및 베스트 인 쇼 전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골든 리트리버의 퀄리티가 꽤 좋은 편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스포팅 그룹의 견종 모두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출진 두수를 자랑했던 포메라니언은 특히 표현력이 뛰어난 개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트리밍도 아주 잘 되어 있었고요. 트리밍이 중요한 견종이 특히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트리밍을 할 때에는 절대로 그 개의 전체 퀄리티를 방해하는 트리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스트 인 쇼 링 안에 올라온 개들은 모두가 좋은 타입(Type)을 갖고 있었습니다. 62년 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사 기준 중에서 저는 타입(Type)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견종이란, 보자마자 “바로 그 견종”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종 BIS로 선정한 포메라니언은 누가 봐도 포메라니언임을 알 수 있을 만큼 타입이 훌륭하였고, 표현력, 건강함, 상태 모두가 아주 좋았습니다. 얼굴 또한 아름다웠고, 특히 귀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포메라니언이 작게 보이는데 반해 피모가 풍성하여 실제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자세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출진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의 출진자는 매우 예의가 바르더군요. 사실 도그쇼는 이기려고 참가한 거잖아요. 가끔씩은 결과에 엄청 실망한 나머지 예의를 갖추기 힘들거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화를 참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국의 출진자 대부분은 아주 공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출진자들의 태도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랜 기간 활동한 브리더, 심사위원으로 한국의 브리더, 출진자, 심사위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 생각에 심사위원은 단지 개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은 브리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사람입니다. 도그쇼의 목적은 1위를 선정하기 위한 스포츠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올바른 브리딩을 위한 것입니다. 도그쇼를 통해 올바른 개를 선택하고, 올바르지 못한 개를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좋은 브리딩을 위한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 신념을 갖고 항상 더 좋은 브리딩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그쇼에 출진하는 사람들 및 다른 심사원들도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친절하게 대해 주신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코 하라세(Ms. Mariko Harase)

“12월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리코 하라세 심사위원은 2010년 4월 절친인 케이코 카와다 심사위원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이래 4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지난 8월 서울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에 초청된 케이코 카와다 심사위원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전해 들어 12월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한국에 와서 기쁘다는 소감으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무려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4년 전과 달라진 점들이 있나요?

먼저 한국의 빅 쇼에서 심사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작년 8월 도그쇼에 정말 많은 개들이 출진하였고, 운영 또한 훌륭했다고 들었어요. 역시 듣던 대로 정말 순조롭게 아무 문제 없이 도그쇼가 운영되었어요. 제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심사위원별 두수 배분입니다. 각 심사위원마다 정확하게 두수가 배분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일본에서도 가끔씩 특정 심사위원은 정말 심사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두수를 심사하는데 반해, 어느 심사위원은 심사할 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14.12.7. '양재 FCI 국제 도그쇼' 레귤러 클래스 수상사진>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심사하신 견종 및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두수를 자랑했던 포메라니언이 특히 기억에 남는군요. 두수가 많은 만큼 퀄리티가 좋은 포메라니언이 많았습니다. 퍼그 또한 굉장히 좋았구요. 그리고 1~2두만 출진하여 두수는 적었지만 퀄리티가 뛰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핸들링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눈에 띄게 핸들링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한국의 핸들러들도 많은 해외 경험을 통해서 외국의 유명 프로 핸들러만큼이나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12월 6일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 베스트 인 쇼 심사를 맡으셨는데, 베스트 인 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죠.

제가 베스트 인 쇼 견종으로 선정한 비송 프리제는 특히 반짝반짝 빛나는 눈과 검은 눈동자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비송 프리제 특유의 귀여움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보자마자 바로 눈에 띄더라구요. 골격 또한 뛰어나서 당연히 걸음걸이가 좋았으며, 피모의 상태도 최상이었어요. 핸들러와의 호흡 또한 최고여서 개가 긴장하지 않고 즐기는 것이 보이더라구요. 이 날의 베스트 인 쇼 견종으로 선정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2석견인 보르조이 또한 퀄리티가 좋았고, 특히 개성 있는 얼굴이 좋았어요. 움직임 또한 훌륭했구요. 3석견인 웰시 코기 펌브록는 수컷다운 남성미가 넘쳤습니다. 바디 자체도 좋았지만 핸들러의 쇼맨십이 특히 훌륭하였습니다. 핸들러의 노력에 대해 칭찬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이나 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딱히 잘못된 점을 찾기가 힘든 쇼였지만 몇 가지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방송 음량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개가 놀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핸들러의 매너에 관한 부분입니다. 1석이 아닌 2, 3, 4석 리본을 받으면 출진자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 좋을 리가 없을 테지요. 하지만 바로 퇴장하기 않고 자신의 개를 심사해 준 심사위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간단한 인사 한 마디라도 남긴다면 심사위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도 앞장 서서 출진자에 예의를 지켜야 하고, 출진자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도그쇼 문화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잘 지켜지지 않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니 한국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로시 가미사토(Mr. Hiroshi Kamisato) 특별 객원 인터뷰

일본 JKC 심사위원으로 아시아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전역을 누비는 히로시 가미사토 심사위원은 이번 도그쇼의 초청 심사위원이 아니다. 단지 이번 도그쇼를 관람하고,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내한하였다. 도그쇼 시작부터 종료까지 한 시도 도그쇼장을 떠나지 않고 한국의 도그쇼를 관람한 가미사토 심사위원을 만나 보았다.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나요?

이번 도그쇼 심사를 맡은 에드 비빈(Mr. Edd Bivin) 심사위원은 제 절친 중 한 명입니다. 저희는 심사도 함께 많이 다녔고, 미국에서 심사할 때에는 에드 비빈의 집에서 머무르고는 했어요. 또한 제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고요(웃음) 에드 비빈이 한국에서 심사한다고 하자 친구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한 한국의 빅쇼를 꼭 보고 싶었어요. 최근 한국의 도그쇼에 일본 출진자들이 많이 출진하고 있고, 동료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한국 도그쇼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어요.

2009년 진도견 스페셜티 도그쇼 심사를 위해 내한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일어 통역을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했는데, 그 사이에 영어 실력이 정말 느셨습니다(웃음)

외국의 도그쇼 심사를 다닐 때마다 항상 심사위원들이 그랬습니다. "FCI 심사위원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 한 가지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영어가 필수이다. 당신이 일본 안에서만이 아닌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저는 영어 학원에 등록했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외국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올해 71세이니 60이 넘어서야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해외 심사를 가도 혼자 조용히 있기만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느라 항상 즐겁지요. 일본이나 한국 심사위원들 중에서는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지만 단지 언어 문제 때문에 해외 도그쇼 심사 기회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한국의 심사위원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영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 처럼 한국 심사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도그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 도그쇼 심사를 다녀 보았지만 한국처럼 잘못된 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운영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예의바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저는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더 많이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본보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퀄리티가 좋은 개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초청 심사위원들 모두가 정말 훌륭한 심사위원들입니다. 에드 비빈은 제 생각에는 AKC 심사위원 중 단연 탑이라 말할 수 있고, 한스는 모든 나라가 원하는 FCI 심사위원입니다. 마리코와 호세는 제 오랜 친구들이고, 로즈마리도 호주 심사 갔을 때 만난 적 있는 훌륭한 심사위원들입니다. 도그쇼 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심사위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는 저희 도그쇼에서 심사위원으로 만나길 빌게요.

네, 저도 한국의 좋은 개들을 꼭 심사하고 싶습니다.

-끝-